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42호 - 주체91(2002)년 5월 26일 (일) 백두산 편집부

이회창, 또다시 반통일 망발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회창은 22일 관훈클럽토론회라는데서 공동선언에 명시된 제2항을 연방제파괴라고 주장하는 이북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느니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이북이 계속 고집한다면 이 조항을 폐기해야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궤변이며 나라의 통일을 내놓고 반대하는 분열주의자의 넋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남북대결과 전쟁을 막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한 지극히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남북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거나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우는 식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그것은 결국 남북대결과 전쟁만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의 통일문제는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공통점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남북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도라는 것은 온 겨레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만이 이를 비방하면서 그 무슨 폐기를 떠들고 있으니 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극악한 반통일분자의 미친 넋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6.15공동선언발표 2돌이 다가옴에 따라 온 민족의 화해와 통일열의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 이 때에 이회창이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반통일적인 망발을 줴쳐댄 것입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동의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건 구태여 논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반통일역도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활개치며 반통일 망발을 줴쳐대고 있는 것은 일일천추로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 우리 겨레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입니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이회창의 광신적인 반통일행위가 가져올 악결과에 대해 똑바로 명심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좀먹는 이회창을 가차없이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3일

6.15공동선언 부정한 이회창, 정계에서 제거되어야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나선 이회창이 22일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핵심조항인 제2조를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사상과 정신을 말살하고 백지화 해보려는 심히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적시도의 발로이다.

아는바와 같이 공동선언의 제2조는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문제를 가장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갈수 있는 목표와 실현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선언에는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데 대한 내용이 반영되여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북과 남이 분렬된 이래 처음으로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한것으로서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순조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는 길은 오직 련방제방식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겨레의 념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공공연히 이를 부정해 나섬으로써 민족의 원쑤, 통일의 원쑤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원래 이회창은 공동선언이 발표된 처음부터 ≪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느니, ≪얻을것이 없다≫느니, ≪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느니 하고 갖은 험담을 다 늘어 놓으면서 공동선언을 반대해 나섰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그가 이번에 또다시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불순한 발언을 줴쳤는데 이것은 이회창역도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반민족, 반통일분자라는것을 여지없이 실증해 주고 있다.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렬과 대결만을 추구하는 이회창과 같은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으면 동족사이에 전쟁밖에 있을것이 없다는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나라와 민족, 통일에 백해무익한 암적존재로 이미 정치적수명이 다 된 이회창은 제때에 정계에서 제거되여야 한다.

2002/05/24 조선중앙통신

≪테로에 관한 년례보고서≫,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조선외무성 대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테로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든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21일 미국무성은 ≪테로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데서 우리가 테로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시비를 늘어 놓으며 가소롭게도 우리 나라를 또다시 ≪테로지원국≫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이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나라들에 이른바 ≪테로≫딱지를 붙여 놓는것은 ≪몽둥이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법이다.

국제테로의 왕초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미국이 제멋대로 만들어 발표한 ≪테로에 관한 년례보고서≫는 사실상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미국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테로≫모자를 씌우겠으면 씌우고 말겠으면 말라는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2002/05/24 조선중앙통신

2 종합
- 주석님동상 모신 무산전투승리기념탑
- 문학예술 노작발표기념연구토론회
-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각계
- 라남의 봉화, 강계정신의 빛나는 구현
- 핵전쟁 방지하고 평화 수호하자
- 민족 안에 더는 둬둘 수 없는 역적
- 이회창 반통일 망언 각계 분노 목소리

4 노작
-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1)

6 세기와 더불어
- 8장 7절 영생의 꽃(2)

8 칭송
- 열사릉 금별매달/첫물오이/위인의 취미
-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

9 노동신문 사설
- 재일조선인운동강화의 앞길 밝혀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경제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월성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미국을 몰아내자
- 조국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되어야 한다

13 투쟁보도
- 북 테러지원국 최초 지정은 조작극
- 민중연대, F-15K선정 철회 촉구대회
- 재미교포단체, ≪주적론≫ 포기 촉구
- 노동자 탄압 하면서 ≪월드컵 무파업≫이라니

15 운동강좌
-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2)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모신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새로 건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을 모신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 량강도의 대홍단혁명전적지에 새로 건립되였다.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63돐을 맞으며 새로 건립된 기념탑은 **김일성**주석께서 주체28(1939)년 5월 또다시 조국땅에 진군하시여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신심을 안겨 주신 력사적사실에 근거하여 무장투쟁만이 살길이며 총대만이 조선혁명승리의 담보이라는것을 조형예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총부지면적은 1만 1,000여평방메터이다. 기념탑은 **김일성**주석의 동상과 그 뒤로 총대와 총창을 형상한 높이 39.523메터의 총대탑, 그 우측으로 길이 35메터, 높이 4.1메터의 대형부주제부각군상, 좌측으로 길이 12메터, 높이 4메터의 혁명사적비로 형성되여 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 건립된 기념탑 제막식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이 하였다.

꽃바구니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주석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이 제막사를 하였다. 그는 새로 건립된 이 기념탑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바쳐 오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전해가는 태양민족의 긍지 높은 기념비이라고 강조하였다.

2002/05/24 조선중앙통신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노작발표기념 연구토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발표 10돐기념 연구토론회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이 로작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를 디딤돌로 하여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창작적앙양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 준 불멸의 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조선노동당의 문학예술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론들에 의하면 창작가, 예술인들은 50여부에 달하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련속편들을 만점짜리 영화로 만들었으며 문학,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를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또한 당창건 55돐을 계기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성과적으로 창작공연하였으며 주석의 탄생 90돐을 기념하여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창작하여 오늘 세상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련일 성황리에 공연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가하는 기념비적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2002/05/24 조선중앙통신

김정일총비서를 칭송하는 인쇄물 게시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12일 ≪애국동지회≫의 명의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칭송하는 인쇄물이 서울의 한 건물담벽에 나부었다.

가로 45cm, 너비 35cm 크기의 인쇄물에는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그분의 령도 따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 나갈데 대하여 씌여 져 있다.

2002/05/24 조선중앙통신

인천 김진수씨, 김정일장군님을 칭송

인천에 사는 김진수씨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이산가족상봉때 평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온 친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남에서는 이산가족들이 상시적으로 당국의 불신과 감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어 실업자나 다름없이 고통속에 살고 있지만 이북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모두가 **김정일**장군님의 한 식솔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일을 잘해서 조선노동당원이 됐고 중앙기관이나 농장의 간부로 됐으며 박사, 교수도 됐다고 한다. 뿐 아니라 자녀들도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교육을 받고 박사, 교수로 자라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들에서 일한다고 한다. 정말 꿈같은 일이다. 월남자가족들과 월북자들에 대한 이같은 커다란 정치적 신임과 배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펴시기 때문이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할 참 어버이이시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년, 5월 23일

서울 재야인사 , 김정일장군님을 칭송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재야인사 최경훈씨가 지난 5월 21일 동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역사적인 평양상봉 2돌이 다가올수록 **김정일**영도자님의 영상이 못견디게 그립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평양상봉의 나날 만인의 매혹을 자아내는 특출한 지략과 풍모로 이 땅과 세계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셨다. 논리정연하고 거침없는 언행과 밝은 웃음, 적중한 유머와 재치있는 농담, 자신감과 열정에 넘치는 기상 등은 탁월한 정치지도력과 덕망이 돋보이는 모습이었다. 역대 그 어느 위인도 **김정일**영도자님의 이런 비범한 예지와 자신만만한 배심, 넓은 식견과 풍부한 정서, 민중을 한없이 사랑하는 고매한 덕망에 비기지 못할 것이다.≫

최씨는 계속해서 세계가 우러르는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모신 것은 겨레의 행운이라며 그분의 통일경륜을 받들어 통일성업에 더욱 과감히 매진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년, 5월 24일

라남의 봉화, 강계정신의 빛나는 구현

≪노동신문≫ 24일부는 새 세기 첫해에 라남의 노동계급이 추켜 든 혁명적봉화는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봉화, 21세기 투쟁과 전진의 기치이며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를 안아 온 강계정신의 계승이라고 강조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창조된 강계정신은 가는 길 험난해도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고 투쟁하고 창조하는 정신이다.

신문은 라남의 봉화는 강계정신의 근본핵인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 있는 새 세기의 혁명적봉화이라고 지적하였다.

논설의 필자는 라남의 봉화에서 기본은 말과 구호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로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해내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라남의 봉화에는 자기를 믿고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갈데 대한 강계정신의 요구가 빛나게 구현되여 있다.

이 세상에 조선사람이 해내지 못할 일,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비상한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일본새, 이것이 강계정신을 체질화한 라남노동계급의 혁명적기풍이다.

2002/05/24 조선중앙통신

핵전쟁 방지하고 평화 수호하자

≪노동신문≫ 24일부는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현 시대가 제기하는 엄숙한 과제이라고 지적하였다.

논설의 필자는 핵우위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 지역에 핵전쟁이 일어 날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인류의 평화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논설은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핵시험을 금지하고 핵군축을 실현하며 핵무기를 완전히 페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논설은 특히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개선하고 전반적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세계적인 열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 날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자면 이곳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핵무기들을 모두 철페하고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논설은 우리는 반핵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02/05/24 조선중앙통신

민족안에 더는 둬둘 수 없는 역적

남조선의 이회창역도가 6.15공동선언을 공공연히 부정하면서 민족의 통일열기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문화방송≫이 보도한데 의하면 그는 지난 22일 그 무슨 초청토론회라는데서 6.15공동선언의 일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가 폐기하자고 주장한 조항은 6.15공동선언 제2항인데 다 아다시피 6.15공동선언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회창역도는 바로 이 조항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역도가 6.15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나라의 통일방향과 근본방도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6.15공동선언 전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번의 발언을 통해서 반민족반통일분자로서의 자기 진면모를 더 여지없이 드러내보였습니다.

다 아다시피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통일운동사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입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모대겨오던 조국통일방향과 방도문제를 민족주체적인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관계없이 새 세기에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통일방도를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통일운동을 더 힘있게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연대는 24일 오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회창 후보 6·15남북공동선언 2항 폐기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통일애국인사들.

6.15공동선언은 21세기 새 세기에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15공동선언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며 통일은 어디까지나 연방제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방향과 방도문제입니다.

그런데 이회창역도는 6.15공동선언에서 핵을 이루는 통일방향과 방도문제를 부정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국통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방향과 방도문제는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오랜 기간 자기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부득이 두개의 제도가 수립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북과 남의 어느 일방도 자기 사상과 이념,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방도는 북과 남의 두 지역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연방제통일밖에 다른 길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6월 평양에서 있은 북남최고위급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이행 2항에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북과 남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한결같이 지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증시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역도와 같은 몇몇 안되는 역적들만이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 있습니다. 민족반역무리들의 이러한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안에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근 60년에 걸친 민족분열의 오랜 역사가 조선민족 매성원에게 지울 수 없는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백발노인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을 그처럼 절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형편에서 명백한 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회창역도와 같은 자들은 우리 민족일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아닌 자들은 절대로 민족성원안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회창역도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흡수통일과 같은 더러운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개꿈입니다.

조국통일운동이 민족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체 통일운동단체들은 이회창역도와 같은 반역의 무리를 굳게 단결된 힘으로 민족밖으로 반드시 밀어내서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아넣을 것입니다.

평양방송 시사논평
주체91, 5월 25일

이회창 관훈클럽토론회 망언, 각계 분노 목소리

한나라당 이회창은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6.15공동선언 가운데 북의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북이 고집한다면 이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발언은 6.15공동선언을 파기하고 그 이행을 저지시키려는 용납못할 반통일적 반민족적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계에서는 이회창의 망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는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지적되어있다. 이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온 겨레의 염원과 지향을 반영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도이다.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지지하고 접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다. 때문에 6.15공동선언은 세상에 공포되자마자 온 겨레가 쌍수들어 환영하며 그 이행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일당만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에 갖은 방해를 하다 못해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으니 이회창같은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회창같은 역적놈을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민족반역자는 마땅히 제거돼야 한다.≫

전국연합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남북대결과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놈들의 앞잡이가 아니고서는 감히 그러한 망언을 내뱉을 수가 있는가. 이회창이 미국행각때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적극 지지해 나섰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가 미국의 개입이 틀림없다. 민족반역자 이회창놈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의 망발은 그가 얼마나 극악한 반통일분자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폐기하라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궤변인가. 6.15공동선언은 남북이 합의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더욱이 공동선언 2항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방도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온 겨레는 물론 온 세계가 이를 적극 지지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을 시비하다 못해 이제와서는 그를 폐기해야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이야말로 온 겨레의 통일열망에 도전하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이회창은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대로 이 땅에서 북침전쟁의 불을 지피려고 발광하는 미국의 앞잡이이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족이 무슨 재난을 입을지 모른다. 미국놈의 앞잡이인 이회창을 민족의 명부에서 당장 제명하고 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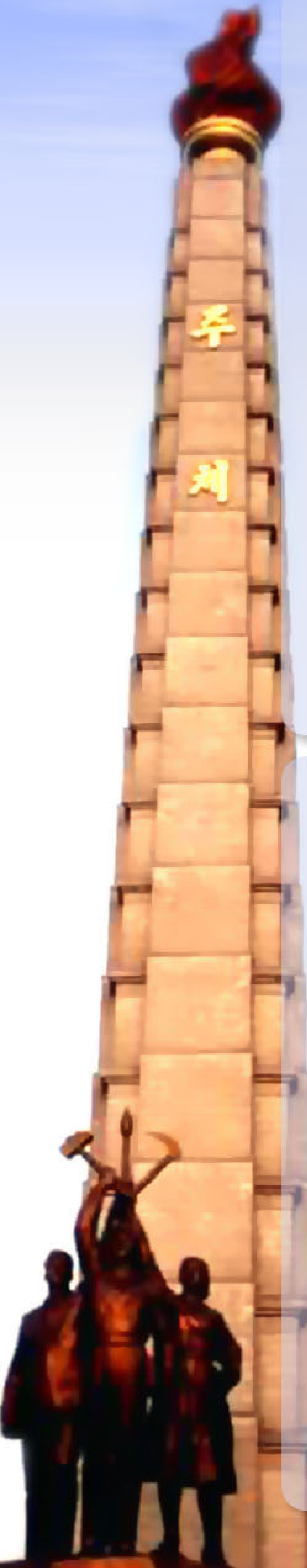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그 조항을 따져가며 시비하고 그 이행을 한사코 반대해온 자이다. 민족자주라는 표현은 미군철수를 의미한다고 앙탈을 부리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한데 대해서는 적화통일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떼를 부린 것이 바로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애초에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분단의 골을 깊게 해서 6.15공동선언자체를 떼어버리자는 것이다. 이회창의 이런 흉심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런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를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민족의 이름으로 당장 목을 쳐야 한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년, 5월 23일 24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1)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김정일장군님 - 주체81(1992)년 5월 23일



우리는 이번에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크나큰 기쁨과 열렬한 축원 속에서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과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6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습니다. 수령님탄생 8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60돐을 계기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주체조선의 위력이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과시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의 정신상태와 기세는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일심단결된 위력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학예술부문이 맡고 있은 몫은 매우 큽니다.

현시기 문학예술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련속편을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으로 완성하며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을 만난 기회에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정형을 총화하고 앞으로 그련속편을 계속 세계적인 걸작으로 완성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다부작예술영화《민족과 운명》은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창작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해가 되였습니다. 그동안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동무들은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제1~7부를 걸작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대한 반향이 대단히 좋습니다. 국내 인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도 이 영화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보고 《조선에서만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연속편을 계속 사상예술성이 높은 걸작으로 만들자면 이미 거둔 성과를 옳게 분석총화하고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1) 주체문학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한 정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이론을 옳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문예 사상과 이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힘을 넣어 왔습니다. 《영화예술론》, 《주체문학론》을 비롯한 주체적인 문학예술이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과 그 실현방도가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당은 기성 이론이나 공식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나 주체적 입장에서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주체적 입장에서 풀어나갔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창작하는 과정에 사상적 대를 세우는 문제, 인물성격을 전형화하는 문제, 인물들의 극적 과제를 설정하고 역사적 사건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 이야기줄거리를 엮고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는 문제,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과 연출, 연기, 촬영, 미술, 음악 형상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였지만 그것을 다 주체적 문예 사상과 이론에 기초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 주체의 인간학을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은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종자는 민족의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주체의 인간학에 기초하여 예술적 화폭으로 깊이있게 그리고 있다는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요인물들을 설정하고 형상하는데서도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작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운명》에서는 반공이냐, 연공이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모대기며 방황하던 주인공들이 연공하는 길만이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 한몸을 바치는 참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일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의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펼쳐보이면서도 그들이 뿌리깊은 사대와 반공 의식을 버리고 민족자주의식을 체현한 새 인간으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자주적 사상의식의 발전과정을 일관하게 그려나간 것은 인물성격창조에서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주체의 인간학의 기본요구를 구현한 것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생활을 그리는데서도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오랜 역사적시기에 걸치는 다양한 생활을 폭넓게 펼쳐보이고 있지만 그 생활을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와 성장발전과정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복종시켰습니다. 참으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주체의 인간학을 비롯한 주체적 문예 사상과 이론의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하고 있은 본보기작품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지난 기간의 문학예술창작에서 이룩된 성과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작가들은 지난 기간 주체문학이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받아들여 영화문학 《민족과 운명》을 훌륭히 창작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문학창작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운 것입니다. 나는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소설, 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학예술형식으로 옮길 때에나 총서 《불멸의 역사》와 시, 가사 작품창작을 지도할 때에도 작품의 대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습니다. 작품의 대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좋은 종자를 골라잡고 주인공선을 잘 살리며 구성의 틀거리를 바로잡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학에서는 새롭고 의의있는 종자를 잡고 그에 기초하여 형상의 꽃을 피우며 인간전형을 창조하고 구성의 틀거리를 바로잡아나가는데서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영화문학 《민족과 운명》에서는 지난날 문학창작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무게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간들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구성조직에서도 석장의 사진을 놓고 주인공 최현덕의 지나온 한생을 집약하여 보여준 것이라든가 조국의 현실을 많이 펼쳐놓지 않으면서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기발한 착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사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당의사상과 의지를 훌륭히 구현한 작품이며 예술적으로 볼 때에는 형상을 완벽하게 창조한 작품입니다.

지난 기간 문학창작에서 인간생활의 세부를 철학적으로 진실하게 파고든 것도 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체현되어 있는 조선의 넋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입니다.

요한성과의 하나입니다. 나는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가들에게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성을 보장하려면 생활의 세부를 잘 그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옮긴 영화와 연극, 소설이나 총서 ≪불멸의 역사≫에 속하는 장편소설은 다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생활세부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지난날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성과를 옳게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보다 높은 경지에로 발전시켰습니다. 내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평가하면서 동백기름을 바른 영화라고 하고 화면마다 미남이라고 하였는데 참말로 이 영화는 매 장면, 매 화면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흠잡을데가 없는 진짜 미남이고 명화입니다. 최현덕이 복수심을 가다듬을 때마다 손가락을 꼽는 장면이나 이모네 집을 찾아갔을 때 이모가 비자루를 들고 달려드는 장면, 차홍기가 울분을 새기지 못하여 손등에 담배불을 비벼 끄는 장면 같은 것은 매우 인상적인 세부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나라 영화, 연극, 가극 예술에서 이룩한 성과도 높은 수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여러 가지문학예술형식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영화혁명의 나날에 영화문학, 연출, 연기, 촬영, 미술, 음악을 비롯한 영화예술의 모든 부문이 우리 식으로 창조되었으며 가극혁명과 연극혁명의 나날에는 ≪피바다≫식 가극과 ≪성황당≫식 연극이 나와 가극과 연극 예술분야가 우리 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화와 가극, 연극은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 예술에서도 도달할 수 없었던 자주시대의 새형의 영화, 새형의 가극, 새형의 연극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우리 식 연출방법과 연기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창작에서는 목표를 크게 내세우고 노리는 것이 있어야 하며 감정조직을 잘하여야 한다는 우리 식 연출방법의 요구와 연기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들고나오며 생활을 알고 연기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 말과 행동에 가식이 없도록 할 데 대한 문제, ≪잠재의식≫이 아니라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물형상을 창조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우리 식 연기방법의 요구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보천보전자악단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음악예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영화의 주제가 ≪내 나라 제일로 좋아≫와 ≪기러기떼 날으네≫는 보천보전자악단의 대표작으로서 그 음악형식과 형상방법이 우리 나라 음악발전 뿐 아니라 세계음악발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창적인 것입니다. 보천보전자악단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쟈즈, 디스코, 로크 음악 따위의 퇴폐적이며 광란적인 음악이나 연주하는 천한 악기로 취급되고 지어 고전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악기로 여기지조차 않던 전자악기를 가지고 맑고 깨끗하며 우아하고 황홀한 선률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정화시키는 진실로 음악다운 음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렇듯 아름답고 고상한 음악은 오직 인민을 위한 음악, 새롭고 특색있는 음악을 형상하려는 높은 창조정신을 지닌 예술가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전자악단은 광란적인 음악만 연주하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배격당하고 있지만 보천보전자악단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우리 음악예술분야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영화음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창작하는 과정에 편집술도 한계단 높아졌으며 분장과 의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이 영화를 만들줄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영화예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한 보람이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창작사업에서 속도전을 벌이며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구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낳은 빛나는 열매입니다.

나는 지난날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와 창작사업의 특성으로부터 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일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은 속도전의 방침이 매우 정당하고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속도전의 방침은 가극예술창조분야에도 구현되어 1년 남짓한 기간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혁명가극으로 창조한데 뒤이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와 같은 5대혁명가극을 창조하게 하였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7부까지 훌륭하게 완성할 수 있은 것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입니다.

나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 앞서 지난날에 세워놓은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환원복구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운명≫창작은 처음부터 철저히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 수 있은 것은 일군들이 우리 식 창작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창조성원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었으며 모든 창조성원들이 주체적인 창조체계의 요구대로 창조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밑에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 때문입니다.

2) 조선영화의 얼굴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첫시작부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조선영화의 대표작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훌륭히 실현해나갔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영화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는 조선의 넋과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습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 체현되어 있는 조선의 넋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입니다.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녀야만 우리 나라, 우리 겨레를 위하여 한생을 참되고 보람있게 살수 있으며 죽어서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나라와 겨레를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걷게 되며 비극적인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최현덕, 차홍기를 비롯한 곡절많고 불우한 인생행로를 헤쳐온 주인공들의 운명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관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나라와 민족을 등진 반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인생말년에 와서야 비로소 한생을 헛되게 살아왔다는 것을 절감하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품,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운 품에 안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된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생말년에 그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그렇듯 심각하고도 엄청난 극적인 전환은 그들이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 우리 당의 위대성, 우리 인민의 위대성,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을 진심으로 체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7. 영생의 꽃(2)

김금순

≪추운 겨울에도 홑옷을 입고 계시는 대장선생님께서 입으시라고 저희들은 옷 한 벌을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양마시고 꼭 받아주십시오.≫

금순이가 아동단경례를 맵시있게 붙이고 나서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 때 내가 정말 홑옷을 입고 겨울을 지내곤 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 옷을 받고나니 어째서인지 속으로 눈물이 났다. 나는 그 옷을 받아들고 이런 말로 아이들을 달랬다.

≪얘들아. 나는 비록 홑옷을 입고 지내지만 혈기왕성한 사람이다. 너희들의 성의는 평생 잊지 않겠다. 그러나 이 옷은 소왕청에서 연세가 제일 높은 할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하니 섭섭해들 말아라.≫

아이들은 울상이 되어 원망스럽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옷을 받지 않는다고 못내 서운해하였다. 내가 두세번 타일러서야 애들은 마지못해 웃음을 지었다.

군중집회가 끝난 다음 금순이는 내 곁에 다가와 군복소매를 살그머니 만져보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걱정하였다.

≪천이 얇아서 바람이 쌩쌩 날아들겠네.≫

지금도 엄동설한이 되면 소왕청에서 금순이가 하던 그 말이 이따금씩 귓전에서 감돌곤 한다.

처음에 왕청사람들은 그를 ≪깜장금순이≫라고 불렀다. 눈동자가 새까맣다고 유격구 인민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붙였다. 조금 후에는 ≪마촌콩새≫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겨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콩새처럼 몸집이 작고 귀염상스러운 어린이라는 뜻에서 길주, 명천 지방 출신 여성들이 달아놓은 애칭이였다.

사람들이 ≪깜장금순이!≫하고 불러도 금순이는 ≪예!≫하였고 ≪마촌콩새!≫하고 불러도 ≪예!≫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하루에 별명을 열 번 이상 들어도 절대로 노여움을 타는 성미가 아니였다.

금순이가 무대에서 탭춤을 추는 날은 왕청사람들의 명절이였다. 그는 옥순이와 함께 늘 이 춤을 추곤 하였는데 아동단유희대의 공연종목 가운데서는 늘 이 종목이 제일 많은 박수갈채를 받곤 하였다. 그가 발을 재게 놀리며 다리와 다리 사이로 수건을 뽑는 동작을 되풀이할 때마다 관객들은 발을 구르며 환성을 올렸다.

나는 왕청에 있을 때 아침마다 백마를 타고 마촌골 안을 돌아다니며 유격구의 실태를 요해하고 새로운 구상을 하곤 하였다. 아침 산보는 나에게 있어서 어길 수 없는 일과였다. 내가 백마를 타고 왕청골 안을 돌아다닐 때면 유격대 나팔수 송갑룡과 전령병 조활남이 나와 동행하였다. 나는 아침 산보를 할 때마다 길가에서 꼭꼭 아동단원들의 가창대열과 맞다들곤 하였는데 그 대열을 볼 때의 기분이란 참으로 흐뭇하고 상쾌한 것이였다.

양 볼이 사과알처럼 붉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생기발랄한 모습을 마상에서 굽어볼 때에 느끼는 대견스러운 심정을 어떻게 하면 방불하게 그려낼 수 있겠는지. 나는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도 아동단원들이 보고 싶어서 아침 산보를 중단하지 않았다. 혹시 그 애들이 눈비를 무릅쓰고 산보를 나왔다가 노상에서 나를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허전해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아이들도 나와 꼭같은 심정을 가지고 궂은 날이나 마른 날이나 할 것 없이 산보길을 한번도 비우지 않았다.

가창행진을 할 때의 선창은 노상 금순이가 떼곤 하였다. 수십 가지의 음성이 뒤섞여 울리는 조잡한 합창 속에서도 우리는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금순이의 유다른 목소리를 쉽게 가늠해보곤 하였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어째서인지 오늘 하루도 유격구에서 만사가 잘되어 나가겠구가 하는 미신에 가까운 안정감이 마음 속에 깃들곤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이수구골 안을 흔드는 아동단학교의 대열합창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딴 지방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 같은 생소한 느낌에 떠밀려 귀틀집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가창대 대열은 때마침 지휘부 근처에 있는 소로길로 행진해가고 있었다. 대열 선봉에는 예전날처럼 역시 금순이가 서 있었다.

금순이는 웬일인지 노래를 부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타박타박 걷기만 하였다. 그날 아침 금순이를 대신하여 선창을 담당한 것은 아동단 단장인 이민학이였다. 금순이의 선창이 없는 가창대 대열은 사실 기둥기수를 잃어버린 합창단과 다름 없었다.

그날은 왜 그런지 하루종일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다. 나는 금순이를 만나려고 석양 무렵에 아동단학교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뜻밖에도 왕우구에 있던 그의 가족들이 적에게 희생되였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금순이가 입을 봉하고 묵묵히 가창대 대열을 따라다닌 것이라든가 이민학이 그를 대신하여 직접 선창을 떼지 않으면 안되었던 까닭이 비로소 이해되였다.

금순이는 그날 내 무릎에 엎드려 기절할 지경으로 오래도록 울었다.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동생도 죽었다는데 나 혼자 살아서는 무엇하나요?≫

그는 이런 사설질을 하면서 비에 젖은 참새처럼 온몸을 오돌오돌 떨었다.

그날 그를 달래느라고 정말 진땀을 뽑았다. 나는 황혼이 스며들 때까지 아동단학교에 남아 금순이를 위로하였다.

≪금순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네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원수들은 너까지도 이 세상에서 없애치우려 할 것이다. 왜놈들은 지금 이 간도 땅에서 조선사람들을 멸족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선민족이 그렇게 쉽사리 놈들에게 생명을 내줄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서 원수를 천백배로 갚아야 한다.≫

금순이는 그때에야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씻으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였다.

≪말씀대로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그후부터 그는 웃음이 적고 말수더구가 적은 소녀로 변하였다. 그가 이전처럼 소리를 내어 웃거나 목청을 높여 입씨름질에 열을 올리는 날은 거의 없었다. 그는 선창을 뗄 때에도 종전과 같이 참새처럼 짹짹거리지 않았다. 소왕청에서는 ≪마촌콩새≫라는 애교있는 별명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린 소녀의 복수심은 아동단생활과 유희대공작에서 배가의 열성으로 나타났다.

금순이를 핵심으로 하는 아동단유희대는 석현, 도문의 회막동과 같은 적통치구역에 나가서도 맹활약을 하였다. 왕청아동유희대의 명성은 동만의 판도를 벗어나 머나먼 북만에까지 확대되였다.

그 당시 동만과 북만의 공산주의자들은 로야령을 사이에 두고 교류를 밀접히 하고 있었다. 로야령 산줄기에 구축된 천험의 장벽도 두 지방 혁명가들이 서로 부단히 왕래하고 접촉하며 지원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였다. 간도를 항일대전의 성새로 만들어놓은 유격근거지들은 만사람이 동경하는 이상향의 모델로 되었으며 거기에 세워진 새 제도, 새 질서는 인방 인민들의 찬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는 꿈으로 되고 숙망으로 되었다. 동녕현성전투는 특히 만주지방 인민들과 무장부대들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을 개선한 전환적인 계기로 되었다. 이 전투가 있을 후부터 구국군들은 나를 ≪김사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이 나를 ≪김장군≫ ≪김대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였다. 유격구에서 우리가 내놓은 모든 노선과 민주주의적 시책은 만민의 축복을 받는 시대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북만의 당조직들과 군부에서는 동만지방 인민들이 이룩하고 있는 유격구건설 경험을 섭취할 목적으로 왕청과 그 주변의 근거지들에 여러차례에 걸쳐 참관단을 파견하였다. 그 무렵의 왕청 중심지는 소왕청이 아니라 요영구였다. 금순이네 아동유희대도 마촌을 떠났다. 적의 대토

별이 있을 후 유격구의 모든 기관들은 일제히 요영구로 이동하였다. 나도 1934년 봄에 일부 부대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1934년 여름 지방조직원들과 유격대원들로 무어진 녕안현 참관단이 임영주라는 여 공청서기의 인솔하에 팔도하자에서 신선동을 거쳐 뒤틀라즈로 찾아왔다. 그 때 요영구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참관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아동단원들은 3각으로 된 붉은기를 흔들면서 ≪북만견학대를 환영합니다≫라는 구호는 연방 외쳤다. 저녁에는 병실 마당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참관단을 위한 연예공연을 하였다.

아동유희대는 북만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다채로운 종목들을 보여주었다. 이 유희대에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아동단원들이 많았다.

이민학은 댄스도 잘하고 하모니카도 잘 불었다. 그가 희극적인 역을 맡아 가지고 연극에 출연할 때면 관중들이 모두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김재범도 댄스명수였다. 그는 춤으로써 오리걸음과 토끼걸음까지 흉내내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왕청현 내의 혁명조직구들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연예공연도 하고 노래보급도 하였다.

우리는 아동유희대를 위해 전투에서 노획한 물자들 중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무용복도 해입히고 연극의상도 해결해주었다.

주보중이 직접 파견한 반일동맹군의 소부대도 얼마동안 요영구에 와있으면서 왕청유격대의 경험을 배웠다. 그것은 순수한 유람식 참관이 아니라 훈련과 실천을 따라세우는 일종의 실습과 같은 것이었다. 요영구에 체류하는 전 기간 그들은 하루생활도 우리 부대가 제정한 일과표대로 하였고 군사훈련, 정치학습, 문화생활도 모두 왕청부대식으로 하였다.

우리는 공청조직과 아동단에 과업을 주어 정상적으로 반일동맹군 대원들에 대한 위문사업을 하였다. 아동유희대들이 반일동맹군 대원들에게 중국말로 된 혁명가요를 연습해가지고 가서 배워주면 반일동맹군 대원들이 아동유희대원들에게 재미나는 중국노래를 배워주었다. 어떤 날에는 아동유희대원들이 중국말로 된 연극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아동유희대의 위문활동에 감동된 북만의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때마다 그들을 병실로 초청하였다. 이 사람들이 북만에 돌아가서 아동유희대에 대한 소문을 크게 퍼뜨려놓았다.

1934년 여름에 주보중은 왕청지방의 아동유희대를 북만으로 초청하였다. 우리는 그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나는 박길중에게 원정공연 준비를 잘해서 북만의 군대와 인민을 기쁘게 해주자고 말하였다. 그리고 유희대가 북만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도 구체적으로 짜주었다.

우리가 유희대를 북만에 파견한 것은 중국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과의 연대성을 한층 공고히 하려는 데 있었다.

주보중이 아동유희대를 초청한 목적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 밑에 있던 반일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교양하자는 데 있었다. 그 당시 주보중은 녕안 일대에 조직된 수녕반일동맹군의 판사처 주임으로 활동하면서 왕덕림의 구국군에서 떨어져 나온 항일대오를 결속하기 위해 간고분투하고 있었다.

나는 아동유희대를 북만으로 파견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싸움에도 인이 박히고 온갖 고초와 주림에도 단련된 아이들이지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닿겠는가 하는 우려가 잠시도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금순이와 같은 어린이가 험준한 로야령 산줄기를 어떻게 타고 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아동유희대원들은 모두 동란 속에서 단련된 어린 매들이였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이겨낸 불굴의 투사들이였다. 그들은 내가 그토록 커다란 불가항력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로야령 산줄기도 어렵지 않게 돌파하였고 토비들의 활동구역도 무난히 통과하였다. 비가 내리면 머리 위에 우산 대신 솔가지와 봇나무 껍질을 쓰고 행군하였다. 밤에는 자기네끼리 야전밥통에 밥을 지어 대충 끼니를 굼때고 모닥불 옆에서 보초를 서가며 노숙하였다. 몇몇 아이들은 배탈을 만나 산중에서 막심한 고생을 하였다. 더구나 유희대가 잡은 노정은 달구지나 발구가 다니게 되어 있는 왕청－로야령의 큰길이 아니라 유격대 통신원이나 다니는 실오리같이 가늘고 험한 지름길이였다. 그러나 수백리의 노정에서 낙오자는 단 한명도 생기지 않았다.

유희대 막내둥이인 금순이조차도 배낭을 매주겠다는 아이들의 제의를 가볍게 밀어버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힘으로 로야령을 넘었다고 한다.

금순이와 함께 북만까지 갔다온 김옥순은 훗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에게 구국군 부대에서의 공연활동에 대하여 재미나게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아동유희대가 북만 땅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린 것은 마창에 주둔하고 있던 채세영 부대에서였다. 채세영은 구국군 지휘관들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였다. 우리가 교양만 더 잘하면 그들을 동맹자로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자로까지 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마창에서의 첫 공연은 금순이의 연설로부터 시작되었다.

150명에 달하는 구국군 장병들이 채세영과 함께 공연을 보았는데 반영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금순이가 연설을 끝마치자 그들은 ≪밤알만한 처녀애가 어쩌면 저렇게도 말을 잘할까! 저 애를 봐서라도 우리가 항일을 잘해야겠다≫고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채사령은 감격한 나머지 자기 방에 금순이를 데려다가 무릎 위에 앉히고 그에게 귀걸이와 손목걸이까지 걸어주었으며 순회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유희대에 두 대의 마차까지 내주었다.

일주일로 예정되었던 공연은 반일부대 장병들의 요청으로 자꾸만 연장되었다. 유희대는 주보중의 부대에 가서도 공연을 하였다. 채세영은 그들에게 솜저고리, 다부산자. 목도리, 돼지, 닭, 당면, 밀가루를 비롯하여 두 달구지나 되는 선물을 보내주었다. 매 아이들에게 가방을 하나씩 메워주고 총까지 선물하였다.

유희대가 원정공연을 끝마치고 요영구로 돌아올 무렵에 나는 부대를 데리고 다른 지방에 가 있었다.

내가 유격구로 돌아오기 바쁘게 아이들은 나를 둘러싸고 북만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자랑하였다.

≪이건 다 채사령이란 분이 준 거예요. 레닌처럼 수염을 기른 분인데 마음씨가 정말 좋아요.. 나는 그 사람의 방에 가서 돼지발쪽이란 것도 먹어봤어요. 주보중 선생님도 선물을 많이 줬어요.≫

금순이는 이렇게 채사령과 주보중 칭찬을 한바탕 하고 나서 칠성자 한 자루를 내 옆구리에 채워주었다.

≪장군님, 이 총은 장군님이 꼭 차야 해요. 우리가 결정했어요.≫

그는 결정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말을 끝내기 바쁘게 제 풀에 캐드득거리며 웃어보였다. 나는 아이들이 섭섭해하지 않게 그 칠성자를 며칠동안 차고 다니다가 청년의용군 대장에게 슬그머니 넘겨주었다. 나머지 무기들도 모두 청년의용군에 인계해주었다. 북만에서 가지고 온 그 밖의 선물들은 고스란히 아동유희대가 처분하도록 하였다.

(내일 계속)

어랑촌유격구의 아동단학교

열사릉의 금별메달

주체74(1985)년 여름 어느 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개건확장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른 혁명열사릉을 찾으시였다.

열사릉을 돌아 보시던 그이께서는 조국광복후 영웅칭호를 받은 다음 희생된 열사들의 반신상에만 영웅메달이 형상된것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훈제도가 있었더라면 항일혁명열사들은 모두가 영웅이 되였을것이라고, 이곳에 안치될 혁명열사들은 다 영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일부 열사들의 반신상에만 영웅메달을 형상할것이 아니라 화환진정대에 영웅메달을 크게 부각하여 열사들 모두가 금별의 위훈으로 빛나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열사릉 화환진정대에는 목란꽃장식속에 커다란 공화국영웅메달이 부각되게 되였다.

첫물오이

주체64(1975)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에 동원된 청년건설자들의 명절준비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이미 그들을 위하여 수많은 고기와 통졸임, 당과류와 과일 등을 보내주신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하신듯 깊이 생각하시다가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리고 땀 흘리며 일하는 건설자들에게 온실에서 딴 첫물오이를 보내주자고, 4월 15일 아침식사전에 그들에게 오이가 가닿도록 비행기를 띄우자고 말씀하시였다.

다음날 아침 풍성한 명절음식상을 마주한 건설자들은 때이르게 식탁에 오른 첫물오이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연을 전해듣고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위인의 취미

내가 제일 좋아 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 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이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량식이며 생활이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이다. 인민들속에 들어 가는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철칙으로 여기신 사업의 한 부분이다. 그이께서는 주체53(1964)년 6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40년간 4, 200여일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며 8, 460여개 단위를 찾으시였다. 이 나날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생활형편도 일일이 알아 보시며 고락을 함께 하시였다. 언제인가 그분께서는 잠시나마 휴식하시기를 간청하는 일군들에게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이 자신의 취미이기에 늘 인민행렬차에 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일찍부터 책을 말 없는 스승으로, 음악을 정치의 위력한 수단으로 삼으신 **김정일**령도자께 있어서 책읽기와 음악도 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 중학시절에 벌써 2, 000여권의 책을 탐독하시여 사람들을 경탄케 하신 그이께서는 단 하루도 독서를 중단하지 않고 계신다. 또한 그이께서는 음악을 자신의 첫 사랑이라고 하시며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들을 몸소 창작하시고 인민들과 병사들의 노래를 즐겨 들으시며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펼쳐 가고 계신다.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고빈드나라인 스리바스타바와 그의 가족이 올린 선물이다.

사자를 다루는 인물을 둘레새김으로 형상한 선물을 오래도록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사자의 엄청나게 큰 몸집과 그에 비하여 매우 작은 몸집의 인물, 생김새는 사나우나 순하게 쪼그리고 앉아 앞발을 들고 아가리를 벌린 채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자, 옷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발돋움하여 사자의 아가리에 여유작작하게 손을 밀어 넣는 사람…

이 희한한 선물에는 어떤 사연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는 1983년 6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선물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은 저와 저의 가족이 오랜 인도역사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한 것입니다.≫

인도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인도에 바하라트라고 하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얼마나 대담무쌍하였던지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겁나하지 않았으며 ≪짐승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와도 서슴없이 맞서 싸웠고 그것들을 길들였다고 한다.

하여 인도사람들은 바하라트를 용감성의 상징으로 알고 있다.

조각품은 인도역사에 기록된 이러한 인물을 원형으로 하여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고빈드와 그의 가족이 선물을 마련하게 된 의도는 단지 역사적 인물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려는 데만 있지 않았다.

그는 인도의 저명한 학자로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접하고 그 정당성과 진리성을 깊이 연구 체득하면서 오랫동안 숭상해 오던 선행이론과 결별하고 주체사상신봉자로 인생전환을 한 사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구 학습하는 과정에 그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인류를 광명한 미래에로 향도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그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인류의 영재로, 세기의 위인으로 끝없이 우러러 흠모하게 되였으며 뜻깊은 명절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그분들에게 축전과 축하편지, 지성 어린 선물들을 삼가 올리였다.

1982년 봄,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오직 주체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굳은 마음을 담은 선물을 마련하여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고빈드는 가족들과 모여 앉아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사색과 탐구, 거듭되는 토론으로 여러 날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고빈드는 주체사상의 불멸의 총서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다시금 펼쳐들었다.

천만사람 모두가 주옥같은 명제들로 꽉 들어찬 주체사상의 교과서이며 우리 시대의 고전이라고 격찬하는 불후의 저작…

고빈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 주체의 철학사상, 사람만이 세계와 인간자신을 개조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선물에 표현하고 싶었다.

그의 뇌리에는 인도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바하라트의 형상이 떠올랐다. 거치른 자연의 한복판에서 사나운 맹수들과 맞서 싸우며 그것들을 길들이는 사람, 동물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까지도 한 손에 거머쥐고 사람 앞에 온순히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인간, 이것은 주체사상의 본질과 진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형상이 아니겠는가.

가족들 모두가 고빈드의 착상을 적극 지지하였다.

마침내 고빈드와 그의 가족들은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을 선물로 마련하기 위해 이름 있는 조각가에게 그것을 특별히 주문하였다.

그때로부터 옹근 한해 동안 선물을 마련하는데 기울인 그들의 고심 어린 노력과 지성, 조각품의 소재로 쓸 희귀한 나무를 인도남부지방에서 구해오던 날들과 조각가의 일손을 도우며 지새운 무수한 낮과 밤은 진정 주체사상신봉자인 고빈드와 그의 가족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바치는 뜨거운 지성으로 수놓아진 나날이였다.

드디어 1년만에 조각품은 훌륭히 제작 완성되였다.

고빈드는 선물을 제작 마련하던 감동의 나날들을 더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어 인도인민을 포함한 전 인류가 받아 안은 영광과 행복은 실로 비길 데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 보급하는 활동에서 인도의 바하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대를 이어 변함없이 주체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가리라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일조선인운동강화발전의 앞길을 밝힌 강령적문헌

노동신문 사설, 주체91, 5월 24일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신 때로부터 7돐이 된다.

이날을 맞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으며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유산인 총련조직을 굳건히 사수하고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을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불 같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총련이 결성된 잊을수 없는 나날과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재일동포들이 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내면서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하나하나 평가하여 주시면서 자기 수령,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무한히 충실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에로 확고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총련과 같은 위력한 해외교포조직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며 민족의 영예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한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애국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긍지감에 넘치게 하고 새로운 애국열의로 불 타게 하며 민족적애국투쟁에로 무한히 고무하여 주는 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기본사업방향을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총련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던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전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틀어 쥐고 수령님께 변함없이 충성 다하는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을 명확히 해주신것은 일찌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총련을 무어 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총련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려는 확고한 의지와 철의 신념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서한에서 해외교포문제의 본질이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심오한 사상에 기초하시여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본사명으로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련이 투쟁강령으로 높이 내걸어야 할 중심과업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제, 조성된 정세와 자기의 임무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높이 들고 대외선전과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등 총련이 수행해야 할 4대중심과업은 해외교포운동의 본질로 보나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 권리로 보나 가장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총련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광범한 동포대중을 총련의 두리에 묶어 세우고 일군들과 동포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현명한 방도를 안겨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유훈대로 총련의 애국사업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는 총련애국사업의 생명선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사상을 숭고한 리념으로 받들고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여 총련조직을 영원히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애국대오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참으로 력사적서한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귀감이시고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위대한 애국로선이며 필승의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위대한 령도의 나날에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의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탄압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총련사업이 일찌기 없었던 시련에 직면한 상황속에서 재일동포들의 가슴에 은정 깊은 사랑과 필승의 보검을 안겨 주시였으며 적들에게 된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조국이 시련을 겪고 있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변함없이 계속 보내주시여 이역땅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이 민족의 대, 애국의 대를 훌륭히 이어 나가도록 은정 깊은 사랑을 돌려 주시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을 철저히 관철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진군에 발 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유훈대로 총련의 애국사업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이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는 총련애국사업의 생명선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사상을 숭고한 리념으로 받들고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여 총련조직을 영원히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애국대오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서한과 강령적말씀을 높이 받들고 총련 제19차 전체대회 결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애국운동의 총진군을 힘차게 벌려 나가고 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 가 새 세대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을 총련조직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총련은 지부와 분회들, 각 계층별 단체들을 통해 동포들과의 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하고 그들속에서 민족성을 지키고 교육문화사업과 동포생활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전환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총련조직을 각계층 동포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그들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대중적인 동포조직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내외반동들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켜 내며 제반 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고수와 리행에 조국통일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민족자주의 구호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기 위한 민족대행진에 힘차게 합세해 나가야 할것이다.

21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성스러운 애국애족운동인 재일조선인운동은 그 앞길에 난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강성부강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위력한 총련조직이 있어 언제나 승리적으로 전진할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20회
임종수 선생 - 주체91, 5월 24일

경제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월성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까지 우리는 정치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경제생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로써 인민대중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경제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적 재부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생활 뿐아니라 경제생활도 하고 해당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서 나타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경제생활을 누리는가 하는 것은 해당 사회의 경제제도가 어떠한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제도는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제한 질서입니다. 인민대중이 경제생활에서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해당사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해 규정됩니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경제관계를 규제한 질서가 경제제도인 것만큼 사회의 우월성을 알자면 해당 경제제도에서 누가 생산수단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경제생활 가운데서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이라는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 말하자면 사적소유와 사회적 소유형태가 있습니다. 사적 소유는 노예소유자적 소유, 봉건적 소유, 자본주의적 소유 *** 소유로 구분됩니다. 사적 소유제도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파생시키며 근로인민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경제적 기초로 됩니다. 사적 소유제도하에서는 아무런 물질적 부도 창조하지 않는 소수 착취계급들이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주인으로써 근로 대중을 착취하고 그들의 자주성을 유린합니다. 그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사회의 현실이 잘 보여줍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소수 착취계급이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언제 실업을 당한지 모를 불안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년 8월에만도 실업자수가 56만 2천명이나 늘어났으며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업자 총 수가 696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적소유가 결코 인민대중에게 좋은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이 자유의 왕국이라고 떠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가 결코 우월한 사회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나눠지며 이 두가지 소유형태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이룹니다. 여기서 전인민적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협동적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수단에서의 사회적 소유는 이전의 모든 소유형태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소유형태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 인민대중의 생산수단의 주인, 경제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소유형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공장, 탄광, 광산, 산림, 토지, 철도는 물론 개별적 기업소의 기계설비들과 같은 모든 생산수단들은 다 근로인민 자신의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생산수단이 근로인민대중 자신의 소유로 되고 있게 때문에 인민대중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아끼고 사랑할 뿐아니라 그것을 적극 애호 관리하며 효과있게 이용해서 생산을 적극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인민은 나라의 모든 물적 자원과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이용해서 전반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생산으로 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참다운 개조자로 창조자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생산수단의 주인인 것으로 해서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사회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처리해 나가는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면 우선 그들이 생산발전의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일하게 되며 그에 따라 사회의 물질적 재부가 부단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대중에 의해 생산된 사회의 모든 물질적 재부가 그 주인인 인민대중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빛내어 나가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것으로 하여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우리 인민은 나라의 모든 물적 자원과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이용해서 전반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생산으로 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참다운 개조자로 창조자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은 생산수단의 주인인 것으로 해서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사회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처리해 나가는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제도는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학습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떠드는 사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의 반동성과 그에 추종해서 전인민적 소유를 개인 소유로 전환시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려 세운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게 경제건설에서 일정한 난관이 조성되자 소유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사회주의를 경제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습니다. 이자들은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떠들면서 사회적 소유를 포기하고 사적소유를 되살릴 것을 강행해 나섰습니다.

그러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떠드는 사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 착취계급들이 더 많은 재부를 긁어 모으기 위한 무제한의 약육강식의 경제의 우월성입니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제는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은 역사에 의해 확증된 진리입니다. 노예 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는 전 기간 사적소유제도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소수 착취계급이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며 근로자들은 자본의 노예로 일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제국주의 반동들이 떠드는 사적소유제도의 이른바 우월성에 유혹되어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하고 수십년 동안 건설한 사회적 소유제도를 해체하여 개인 소유로 넘겼습니다. 결과 경제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고 어제날의 생산수단의 주인이었던 인민대중이 그것을 빼앗기고 자본의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에서 사회주의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실업자가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나고 각종 사기와 협잡, 강도행위가 늘어나 인민들이 불안과 고통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는 것은 사적소유제도가 가져다 준 응당한 귀결물입니다. 지난날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난관과 시련을 겪고 좌절되게 된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 밝혀주신 바와 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발전시키기 못했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못하고 그 역할을 높이지 못한데 있습니다. 오직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빛내여 나가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회적 소유만이 자기에게 유력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생활을 통해 체험하고 그것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생활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가운데에서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라는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을 몰아내자

흔히 사람들의 기억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희미해져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감행한 우리 민족에 대한 미제의 살인만행, 그 피값을 받아내기 전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럼 이 시간 첫 순서로 서울시에서 살고 계시는 김철만씨의 글 ≪미국을 몰아내자≫를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영국 유력주간지인 ≪옵서버≫의 필립 진기자가 쓴 ≪나는 한국에서 포로되었다≫와 일간지 ≪데일리 워커≫의 앨런 위닝턴기자가 쓴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 등 두권의 ≪한국≫전쟁 당시 형무소학살관련 증언록이 공개됐다.

증언록에 따르면 ≪한국전≫당시 미군은 철수하기 직전 1700여명의 죄수를 트럭에 싣고와 총살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언록에 의하면 재소자집단학살사건은 7월 4일부터 6일과 7월 17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특히 2차 학살때에는 여성을 포함한 재소자이외의 민간인학살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학살직후 대전형무소인근에는 6개의 큰 구뎅이속에 7000여명의 피학살자가 묻혀있었다고 한다.

증언록에는 이에 대해 당시 학살현장에서 미군장교가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 사건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일어난 학살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다.

미군에 의해 감행된 대전형무소 피학살자규모는 2000에서 7000명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이 밝혀지고 또 그것이 확증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00여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노근리사건을 비롯해서 이 땅 곳곳에서 미군이 감행한 학살사건은 이루헤아릴 수가 없다.

1950년 여름부터 1951년 여름까지 ≪한국≫전쟁 1년동안에만도 미군에 의해 피살된 사람들의 수는 무려 10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노동대중을 비롯한 우리 민중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안겨준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의 원수임을 더 똑똑히 알게 됐다.

그러한 미국이 오늘은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걸고 들며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이나 북이나 관계없이 우리 민족이 화를 입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경제와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공멸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 다시말해 이 땅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은 세계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국지전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 민족의 전부가 그들에게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가 그들에게는 득실의 문제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먹고사는 문제는 절실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 다시 말해 임금이나 얼마 더 올리고 노동조건이나 개선하는 문제보다 더 급한 문제가 민족의 생사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민족의 운명을 지키자면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며 그러자면 반미투쟁을 벌어야 한다. 미국을 놔두고서는 이 땅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항시적인 위험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하고 민족의 운명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가깝게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도 질의 문제가 아니가 그 존재자체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13000만 노동대중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될 미래들을 위해서도 반미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외세가 없고 민주화된 통일의 새 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이 땅은 결코 대양 건너 미국의 전쟁터가 아니고 우리 민족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핵전쟁희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악과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야 할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5월 22일~24일

조국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앞둔 지금 우리 민중들속에서는 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확약했죠. 조국통일은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온 겨레가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결사반대하고 반전반미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 땅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무력행사를 해서 온 강토가 쑥밭으로 되고 민족이 공멸한 다음에는 조국통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잖아요. 민족이 있고야 통일도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첫 순서로 ≪조국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인 조국통일은 무력행사로써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돼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놓고 동족끼리 싸워야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남과 북사이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도 무력행사의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도는 결코 강요한다고 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 방법으로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분열사가 증언하고 있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것이고 또 온 겨레의 일치한 요구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 것은 우리 민족이고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입니다. 우리 민족구성원들은 누구나 제 나라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요구일뿐 아니라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일치하게 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핏줄을 나누고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역사와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민족구성원은 누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반북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킨다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북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우리 민족의 분열사와 오늘의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조국분단의 원흉이며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임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 땅에서 항시적인 전쟁온상으로 되고 있는 미국침략군을 쫓아내는 반미운동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외세를 배격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평화통일 이룩하자≫, ≪안팎의 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각계 우리 민중들이 반미반전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7천만 온 겨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미투쟁에 힘차게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2일~23일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신문 논평-주체91년 5월 24일

남조선에서 한총련탄압말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통일애국단체인 한총련에 이적딱지를 붙여 탄압을 계속해오던 공안당국은 얼마전에는 10기 한총련의장과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전 서총련의장과 국민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한총련소속 10여명의 대학생들을 연행해가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유혈적인 검거선풍은 180여개의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한총련을 와해시키려는 분열책동과 모략책동도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광란적인 폭압소동은 한총련말살을 노린 공안당국의 계획적인 책동으로써 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총련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10기 한총련5월축전 및 출범식을 거행하였다.

행사에는 한총련의장 김형주를 비롯한 1만여명의 대학생들과 한총련을 지지하고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일치하게 6.15공동선언은 분열의 장벽을 허무는 통일의 이정표라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힘있게 떨쳐나설 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민들이 민족자주통일을 주장해 나선 것은 시대의 요구와 남조선 민심을 반영한 의롭고 정당한 것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일애국단체들을 탄압하는 것은 대결시대의 유물이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 것을 확약하였다. 민족자주통일선언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돌이 되어오는 지금에 와서까지 이적을 운운하며 통일애국단체인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6.15공동선언과 4.5공동보도문을 이행하여 북남관계를 회복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적 열의가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악랄하게 짓밟히고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친 것도, 통일부가 남측대표들의 금강산길을 가로막은 것도, 우익보수세력들이 안변청년발전소 언제의 붕괴위험을 떠드는 것도, 악질반공분자들이 반미친북세력명단을 작성공개하려는 것도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높아가는 자주통일 기운을 짓누르려는 범죄적 흉심의 발로이다.

정의에 불타고 애국에 열렬한 청년학생들이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을 묵과할리 만무하다.

얼마전에도 한총련은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자주통일을 이룩할 자기들의 결의를 호소문에 담아 표시하고 투쟁을 드세차게 벌였다.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공안당국이 파쇼폭압의 칼을 빼어들고 탄압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오려는 청년학생들을 철창속으로 끌어가고 그들의 단체를 이적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더없는 반통일 행위이며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파쇼칼부림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온 민족이 자주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여야 하며 애국적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만행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돼야 한다

오늘날 이 땅에서 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매우 한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는 이 땅 여성인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 땅에서 여성들의 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또 그로인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는 이루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피해가 어떤 측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우선 모성파괴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산재보상과 모성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요. 학습지교사의 경우만 봐도 임신을 하면 일반적으로 직업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사측에서 허용하지 않아 유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게다가 병이나도 일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숨지는 그런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경력 6년째인 모교사의 경우만 봐도 잘알 수 있는데요. 그는 결혼한지 7년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사산했어요. 그는 임신이후 학습지교사를 그만두려 했지만 사측이 허용하지 않아서 7개월동안이나 무거운 몸으로 하루 20여가구씩 관리하지 않으면 안됐죠. 결국 사산한후 그는 보험처리는 물론 퇴직금도 한푼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입사 6년차인 김모교사는 불규칙한 식사와 과중한 스트레스로 고생을 했지만 병원에 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회자 : 이같은 사례는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보험모집인들도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산재보상도 못받고 또 본인이 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나마 사고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도 설계사는 직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만 보상받는 정도이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우울증환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일명 ≪캐디≫라고 불리우는 골프장경기보조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진데 캐디는 업무중에 골프공 등에 맞아 다쳐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또 안경착용금지로 각막질환 등 여러 눈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캐디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골프장 농약에 과다하게 노출되고 20킬로그램에 달하는 가방을 메거나 끌어야 하는 노동강도로 하혈과 불임, 유산이 많이 발생해도 그것도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성희롱 등 인격모욕과 성적 학대도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윤정원 : 네, 특히 캐디들의 경우 사업주나 관리자가 고객들로부터 각종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희롱을 거부하면 고객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항의를 받는 것은 물론 사측으로부터 해고종용을 받는 등 항시적인 고용불안속에서 근무하는 실정이예요.

이외에도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해고 역시 심각합니다.

사회자 : 그리고 보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를 두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적중한 표현인가를 잘알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겁니다. 더이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윤정원 : 그렇죠. 문제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처지개선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들의 정당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찾고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자면 무엇보다 민주노총과 여성노조를 비롯한 노조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조직전개해야 하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호소를 자기 아내나 누이, 동생들의 피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처지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에 적극 합세해 나가야 할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신들이 이 투쟁에 과감히 나서는 거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자각하고 하나로 뭉쳐 투쟁에 분기해 나설때라야 승리를 이뤄낼 수가 있는거죠.

사회자 : 이렇게해서 관계당국과 악덕업주들은 시대와 민중의 요구에 걸맞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권리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우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오랜 세월 역사속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던 우리 여성들, 이들이 이제는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한 주역입니다. 이런 그 권리 누가 거저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 스스로 단결하고 뭉친 힘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거죠.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5월 22일~24일

북 테러지원국 최초 지정은 ≪조작극≫

통일연대,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규탄기자회견 가져

통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지난 21일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규탄하면서 지난 88년 미국이 북한을 처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게 한 ≪김현희 KAL기 사건≫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살상무기의 원조국≫이라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반드시 비판되고야 말 것≫이라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정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최규엽 자통위원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최근 김승일의 부검 관련 서류에서 김승일의 젊었을 때 사진이 공개되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규엽 자통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 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언론의 고의적 외면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얘기하면서 ≪남북화해를 위한 결정적 사업이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에서 통일연대는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대북봉쇄정책, 대북강경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미군사동맹 강화 및 북에 대한 침략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심각하게 방해, 위협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통일연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테러지원국 지정의 발단이 된 김현희 KAL기 사건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김현희에 대한 의혹에 이어, 최근 김현희와 동행했다는 김승일의 죽음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북을 음해하려는 미국과 당시 안기부의 고도의 조작 날조극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정미 기자
2002/05/25 통일뉴스

민중연대, F-15K 선정철회 촉구대회 가져

≪대통령이 F-15K를 재가하면 월드컵 기간이라도 개의치 않고 투쟁하겠다.≫

6월 초 F-X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월드컵 기간에 상관없이 F-15K 선정철회 활동을 벌일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한총련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있는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F-15K 선정철회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율곡사업의 비리보다 더 큰 규모의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는 F-X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6월 초 대통령 재가와 6월 말 공식 발표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F-X사업 강행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월드컵 분위기를 틈타 대통령이 F-15K 도입으로 최종 도장을 찍을 때는 월드컵 기간이라 할지라도 범국민적으로 강력한 규탄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생, 노동자, 빈민 등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촉구대회는 서경원 자통협 상임고문의 F-15K를 강매한 미국에 대한 규탄, 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의 여성인권탄압 문제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발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경원 자통협 상임고문은 ≪우리나라 전투기를 구입하는데도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F-15K를 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현숙 여성위원장은 ≪율곡비리의 재판인 F-X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종희 국민대 총학생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F-X사업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정치권력의 부정한 로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F-15K 도입 중단 ▲F-15K 도입강요 미국 규탄 ▲대통령의 F-15K 도입재가 거부를 요구했다.

한편, 용산 미군기지반환 운동본부는 F-15K 선정철회 촉구대회에 이어 곧바로 ≪용산 미군기지반환, LPP협정 국회비준 거부, 한반도 핵전쟁책동 분쇄를 위한 7차 시민대회≫를 열었다.

뙤약볕 아래 계속되는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기도와 주한미군의 사우스포스트 내 고가도로 건설, 덕수궁 내 미대사관 신축계획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참가자들은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한미관계가 종속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인하게 됐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미군기지 1번 게이트까지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진행한 후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장동렬 기자
2002/05/25 통일뉴스

재미교포단체 ≪주적론≫ 포기 촉구

재미동포 단체들이 지난 16일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주적론≫ 포기를 촉구했다고 북한 평양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재미교포 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 아메리카주 지역 후원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재미교포 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문제연구소 신영석 소장은 ≪임동원특사의 방북과 남북관계≫ 제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교포 김병창(LA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회장)씨는 ≪남측의 주적론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면서 ≪북을 한편으로는 협상의 대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중적 성격은 남북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평화통일자문위원을 지낸 오인동 박사는 ≪통일의 대상을 주적이라고 공격해서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 없으며 다른 어느 나라도 주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면서 ≪북을 주적이라고 한다면 북이 어떻게 남한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한반도 평화는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통일의 길로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평양방송은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김명수 평화문제연구소 부이사장의 ≪6.15공동선언 2주년과 남북관계 전망≫, 자유기고가 은호기씨가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강진욱 기자
2002/05/23 연합뉴스

노동자 탄압하면서 ≪월드컵 무파업≫이라니

≪필자는 그렇다고 노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월드컵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다. 월드컵 성공, 16강 진출 다 좋다. 하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월드컵 성공, 16강 진출과 더불어 노동기본권 16강, 의료 · 사회복지 16강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23일 아침자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기고한 글 가운데 일부다. 이 국장은 기고문에서 ≪월드컵≫에 임박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파업≫으로 몰리는 안타까운 노동현실을 전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부쪽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번 밖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월드컵≫이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노동계가 ≪파업≫이라는 극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계는 노동계가 임금 등 단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일부러 월드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는 재계가 월드컵을 핑계로 법으로 규정된 단협을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고 부당 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월드컵 무파업≫을 추진해 왔다.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기간에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때도 정부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써 왔다.

하지만 이같은 ≪무파업≫이 자칫 정부가 나서서 거짓된 국내 노사관계를 외국에게 알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은 이미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사업장에 따라 노사간 협상이 결렬돼 파업도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된 사업장도 많다. 금융노사가 그 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정부 주도의 왜곡된 노사 관계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월드컵 기간의 ≪파업≫ 자체로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인이 투자를 꺼려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국가 이미지≫와 ≪신인도≫ 등 정부나 재계 등 사회적 강자들이 내세우는 주장들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나 주장이 묻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노조 파업 이후… 해고 351명, 고소고발 894명, 재산 425억 가압류

발전산업노동조합이 23일 내놓은 ≪발전파업 이후 현장 탄압 상황≫이라는 보고서는 파업 이후 정부와 회사쪽이 ≪파업재발 방지≫를 위해 노조 무력화와 노동인권 침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회사쪽의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처리 내역을 보면 해고자가 351명에 이른다. 이어 894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무더기로 이뤄진다. 전체 조합원 5500여명 16%에 해당한다. 특히 회사쪽의 4000여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4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과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조합원들은 기본적인 경제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된다.

회사쪽은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매일 성향을 파악, 관리해왔고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회사쪽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합원의 징계와 현장 투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남부 발전회사의 경우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개인행동 기록표를 만들어 관리해왔다. 또 일부 발전회사는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회사 주택으로부터 퇴거를 요구해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반 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발전노동자들에게 자행된 450억 원의 벌금부과, 351명 간부 해고 등 노동 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나라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고초를 감내하며 앞장선 발전노조가 버림받는다면 이제 누가 국가경제를 위해 나서겠느냐≫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의 백순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무엇보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된다. 가정을 영위할 수 없고 현장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월드컵을 도와 줄래야 도울 수가 없다≫며 ≪발전노동자의 생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에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38일간 전국을 뒤흔들던 투쟁 끝에 당하고 있는 인권탄압, 노동탄압 중지에 대한 사회각계의 지지와 호소에 감사한다≫며 ≪이후 발전소 매각 저지와 노동자 탄압중지 투쟁을 열심히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속, 보건노조 등에 이어 민주택시 등 파업 동참

민주노총의 파업은 지난 22일 오후 1시 금속노조 산하 두산중공업, 만도기계 등과 민주화학연맹 산하 금호타이어 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금속노조는 ≪산별 기본협약 체결, 노동시간 단축,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등에 대해 사쪽과 지난 3월부터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23~24일 각 지회별로 2시간 부분파업 또는 태업을 벌이고 오는 29일 2차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24일에는 민주택시연맹 산하 100여개 사업장 1만여명이 완전월급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세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오전 7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산하 강남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산별 교섭 쟁취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인력확보 등에 대해 사용자쪽이 불성실한 자세로 나서 교섭이 결렬됐다≫며 ≪병원별로 어제 파업 전야제를 가졌고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은 40여개 병원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면 파업중인 병원으로는 강남, 음성 성모병원 등 3곳이며 고대, 이대, 경희대 의료원 등 12개 병원은 부분 파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전체 파업 규모도 14곳에 2000여명이라고 노동부쪽은 집계했다.

한양대 의료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 산하 16개 병원, 동아대. 단국대 의료원, 울산대병원, 조선대, 충남대 병원 등은 협상이 타결됐다.

예상보다 파업 돌입 병원이 대폭 줄어든데다 파업에 들어간 병원들도 대부분 비번자와 조합간부 중심으로 병원 로비 등에 모여 집회를 열어, 극심한 진료 차질 등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와함께 사회보험노조원 5000여명과 경기지역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노조원 800여명도 이날 오전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택시연맹도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월급제 등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아 24일 오전 4시부터 136개 사업장 1만 1000여명이 일제히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2일 파업에 돌입했던 금속, 화학노조 산하 100여개 사업장 중 금호타이어, 두산중공업, 만도, 영창악기 등 40여개 노조는 이날 전면 또는 2시간 부분파업을 지속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방침대로 월드컵 이전 임단협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한편으로는 월드컵 무파업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탄압을 가하는 데 대해서는 월드컵과 상관없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어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갖고 노동탄압 중단과 사용자쪽의 성실교섭 등을 촉구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여전히 불법 파업에 대한 엄중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22일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일반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파업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어 ≪월드컵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파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 훼손이 더 큰 문제≫라며 ≪월드컵 개막 후 파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1만3000여명의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이 비교가 되고 이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회복하는 데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노사간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앞서서 ≪월드컵 무파업≫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거짓이라도 ≪평화스런 한국의 노사관계를 위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정부는)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파업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할 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서 ≪과정을 생략한 채 입으로만 무분규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국장도 ≪월드컵 자체를 싫어하는 노동자는 없다≫면서 ≪대신 월드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들이 제약을 받고, 왜곡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2002/05/24 오마이뉴스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2)

- ≪9월테제≫에 대한 해석

글을 시작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글을 맺으며

자주적민주정부를수립하는전략적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2)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이 수행되는 경로는, 남(한국)에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중 민주주의체제로 발전해나가는 경로인데, 그것은 남(한국) 근로대중의 사회정치적 요구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협소한 범위에서 광대한 범위로 실현되어 가는 민주주의 혁명의 전 과정이다.

두루 알려진 대로, 일반 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는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을 비롯한 기층민중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사회 · 정치적 권리가 아니다. 일반 민주주의는 소수의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외한 남(한국)의 근로대중 전체가 누리는 사회 ·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남(한국)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동력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서 나온다. 남(한국)의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과 남(한국)의 근로대중 사이에 형성된 전선을 민족통일전선과 구별하여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른다.

물론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에서 나오는 동력도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반제자주역량에서 나오는 동력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으로 구분된다. 민주변혁역량의 중심동력은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되어 그 전선을 주도하는 남(한국)의 기층민중(노동대중과 농민대중)에게서 나오고, 그것의 보조동력은 민족민주전선에 결합된 남(한국)의 중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에게서 나온다.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한 근로대중의 사회 · 정치적 요구는 기층민중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제약하거나 짓누르고 있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거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전체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반민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장치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사파쇼정권이 사라진지 오래 된 오늘에도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파쇼억압체제의 유산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 민주주의체제와 파쇼억압체제의 유산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지향한 근로대중의 사회 · 정치적 요구는 당면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수행되고 그 투쟁에 집중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남(한국)의 양대 기층민중인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은 물론 중간층까지 포함한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광범위한 동력을 전선으로 집결시켜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고립 · 타격할 수 있는 투쟁이므로 민주주의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된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가지는 의의는, 그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요구, 당면요구라는 데 있다.

남(한국)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단계는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청산하여 정부와 의회를 기층민중의 정부와 의회로 교체 ·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기층민중의 정치역량이 근로대중 전체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근로대중과 함께 대중적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기층민중의 정치역량이 근로대중과 함께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건하고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투쟁을 전개하면서 집권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장성하는 단계다.

그런데 지금 소자산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권층 개혁세력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불안정한 기조 위에서, 매우 불철저하게, 그리고 파행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 정세의 기본성격은 민족민주전선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 사이의 비타협적 투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이 정치권 안에서 벌이는 타협과 정쟁으로 혼탁하게 얼룩져 있다. 개혁정세의 불확실성은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취약한 역량을 지닌 집권층 개혁세력이 파행적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만일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이 강하다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로 진입하여 짧은 기간 안에 완수하였을 것이며 연속하여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의 1단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자산계급에 기반을 둔 집권층 개혁세력이 민주주의혁명의 1단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 장악해버렸다.

집권층 개혁세력의 개혁은 근로대중의 정치역량을 조직 · 동원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집권세력 자체의 빈약한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친미예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역사적 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역량의 결핍, 친미예속성에 의한 역사적 전망의 부재 때문에 집권층 개혁세력의 개혁은 결국 파탄되고 말 것이다.

지금 집권층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개혁정세는 혼탁한 정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개혁정세의 파탄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은 아직 정세발전을 주도할 만큼 장성하지 못했다. 민족민주전선은 기층민중의 정치역량을 전선내부의 핵심역량으로 집결시켜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 근로대중을 자기편으로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다. 집권층 개혁세력의 개혁이 파탄의 길로 밀려나고 있는데도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체적 조건의 미흡성 때문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층민중과 중간층을 망라하는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을 자기의 전선에 총집결시켜야 하며, 그 힘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건해야 한다. 이 정당은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두 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다.

이 지점에서 민족민주전선에 집결한 민중의 정치역량이 중간층과의 정치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초미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간층은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에 대해서는 지지 · 동참할 수 있지만,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한미군 철퇴운동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면서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다. 중간층이 주한미군 철퇴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제국주의자들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이 매우 오랫동안 날조 · 유포해온 이른바 ≪남침위협설≫이 아직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북(조선)의 ≪남침위협≫으로부터 남(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짓신화가 중간층의 의식구조를 집요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정상적인 의식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게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남침위협설≫은 1998년 8월의 ≪백두산 1호≫ 발사 이후 ≪미국위협설≫로 바꾸어졌으며,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의 ≪남침위협설≫은 2000년 6월의 6.15공동선언 이후 차츰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남침위협설≫이 사멸해가면 그에 따라 중간층의 대북공포심과 대북적대감도 자연히 소멸된다.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중간층의 대북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현실로 확인하고 있는 바다.

중간층의 의식을 기형화, 황폐화시켜왔던 ≪남침위협설≫이 사멸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그들의 관점도 당연히 바뀌게 된다. 주한미군을 ≪보호자≫가 아니라 불필요한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중간층이 주한미군을 단지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남(한국)에서 주둔해서는 안 되는 악질적인 가해자라고 인식하게 되어야 그들도 민족민주전선의 주한미군 철퇴운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민족민주전선은 중간층에게 남(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군사적 지배와 참담한 실정을 폭로하고, 중간층에게 미군 주둔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둘째, 중간층은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지 · 동참할 수 있지만,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에 가서는 동참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남(한국)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는 그것만 따로 분리되어 단독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한(조선)반도의 전반적인 정세변화 속에서 반제자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의 급격한 상승 · 발전과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는 북(조선)에 대한 아메리카제국주의의 적대 · 말살정책이 파탄되면서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정세변화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남북 정부당국 사이의 적대관계가 비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통일전선으로 발전하여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정세변화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민족민주전선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변화 · 발전될 것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이 중간층의 동요와 이탈을 막고 그들을 민중 민주주의의 실현단계로 동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가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연속해서 상승 · 발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연속해서 상승 · 발전하는 것은 오로지 민족민주전선의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에 이르면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인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의 전일적이고 고유한 정치조직,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민중 민주주의의 실현에 전적으로 복무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화 · 발전될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의 수행정도가 진척되는 것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이 수행되는 범위와 속도가 정해지게 된다.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수탈체제가 주한미군 철퇴로 치명타를 맞게 되면, 그에 따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의 권력구조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은 흔들리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의 권력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에 집중적인 정치적 타격을 가하면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1단계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연속적으로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민주주의 혁명의 전진궤도로 급속히 진출할 것이다.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민주주의 혁명과정은 곧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이 주도하는 사회변혁의 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주체는 민족민주전선체, 그리고 민족민주전선에 결집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정당)이다.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민족민주전선의 강위력한 대중투쟁력, 다시 말해서 근로대중의 조직화된 운동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승리하는 사회변혁이며, 또한 그것과 더불어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정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정치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회변혁이다. 민족민주전선에 총집결한 근로대중의 투쟁력은 개혁정세의 파탄 이후에 전민항쟁의 전투적 역량으로 상승 · 발전될 것이며,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정당)이 창건된 이후에 그 정치조직의 역량은 집권을 준비하는 높은 수준으로 강화 · 발전될 것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

자주적 평화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뜻한다. 자주적 통일이 연방제적 성격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성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평화적 통일이 연방제적 성격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성격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한(조선)반도에서 실현될 통일의 성격은 철두철미하게 연방제적이다.

문제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동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동력은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각이한 동력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총집결하면 그것이 민족통일전선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된 각이한 동력들이 하나의 전선으로 총집결한 것도 또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게 된다. 하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형성된 조국통일운동의 각이한 동력들을 총집결시킨 전선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전민족적 범위에서 형성된 반제자주화운동의 각이한 동력들을 총집결시킨 전선의 성격이다.

전민족적 범위의 조국통일역량이 총집결된 민족통일전선에는 그 전선을 움직여 가는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이 작용하게 된다.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은 북(조선)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이 결합된 동력이고, 보조동력은 남(한국)과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정치역량이 결집된 동력이다.

여기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은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의 관계문제다. 민족민주전선도 넓은 의미에서 민족통일전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 분단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민족민주전선이자 곧 민족통일전선이다. 그러나 우리 한(조선)민족의 경우는 분단현실의 특수성 때문에 이 두 전선의 구분이 불가피하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전선으로 일치시킨 전통적인 이론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한(조선)민족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힘들다. 민족통일전선은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형성되는 전선이고, 민족민주전선은 남(한국) 지역의 한정된 범위에서 형성되는 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의 동력은 전체 한(조선)민족에게서 나오는 데 비해,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은 남(한국) 민중에게서 나온다.

민족통일전선의 투쟁대상은 한(조선)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음으로써 한(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억누르고 있는 제국주의세력, 곧 아메리카 제국주의세력이다. 남(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친미예속적 반미주세력은 민족통일전선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민족통일전선의 주된 투쟁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주된 투쟁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당면한 투쟁과정에서는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분리시키면서 제국주의세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전략적 타격을 가하고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에 대해서는 견제하면서 전술적 타격을 가하는 투쟁이 요구된다. 집권세력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대하지 말고 그 세력권 안에서 개혁성과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구성부분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 대응해야 하며 민족통일전선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하여 그 동력을 강화하고 주적에게 타격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의 역사는 물론이고 모든 나라의 민족통일전선의 역사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의 적대관계를 잠시 뒤로 미루고 제국주의세력을 타도하는 투쟁에 집중해야 하며, 민족 내부의 반민주세력이라 할지라도 제국주의와 모순관계(비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휴 · 공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장 중대한 정치적 요구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6.15공동선언을 민족통일전선의 위대한 승리라고 칭송하고, 또한 그 선언을 민족통일전선이 실현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준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친미예속적 집권세력의 일부를 민족통일전선안으로 견인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하여 형성되고 그 선언을 기치로 하여 한(조선)민족 전체를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전진시키는 자기의 성격을 확대시키고 있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이 6.15공동선언 이후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반미자주화를 기치로 한(조선)민족 전체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민족통일전선의 또 다른 성격, 반제적 성격도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민족통일전선과 달리 민족민주전선은 남(한국)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형성되어 민족해방의 과업과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전선이므로 그 대상은 남(한국)을 지배 · 수탈하는 제국주의세력과 남(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이다.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은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에 포함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적 과업을 받아들이는 세력만을 자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남(한국)에는 6.15공동선언을 지지 · 찬동하면서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적 과업을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민족민주전선의 동력이 될 수 없다.

민족통일전선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 계급적 처지와 생활권의 차이를 떠나 6.15공동선언을 지지 · 찬동하는 모든 민족성원들로부터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무한정한 투쟁동력을 공급받는다. 민족통일전선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시작하여 연방제 통일을 완수하는 전체 과정에서 부단히 심화 · 확대되어 간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이 심화 ·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그 전선의 반제적 성격도 심화 · 확대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은 곧 그 동일한 전선의 반제자주화운동을 전진시키는 것이며, 반제자주화운동이 전진되면 민족의 자주성이 완성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을 조직체로 실체화한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결성될 민족통일기구다. 민족통일전선이 자기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사적 임무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통일기구를 공고한 국가권력기구로 상승 · 발전시키어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이 자기의 반제적 성격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사적 임무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다. 민족통일기구에 관한 설명은 나의 논문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경로는 어떠한가?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것은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고 강화 · 확대되고 그에 따라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1단계, 곧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는 경로를 밟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전민족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고 강화 · 확대되면, 남(한국)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자기의 투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전선과 민족민주전선은 그 성격과 동력, 지위와 역할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그 두 전선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 상호연관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통일전선이 날로 강화 · 확대 · 발전하는 정세 속에서 남(한국)의 민족민주전선은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고 근로대중의 사회 · 정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북(조선)의 정부와 함께 기존의 민족통일기구를 더욱 강화 · 확대 · 발전시켜 짧은 기간 안에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민족의 자주성은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되며 자주적 평화통일의 과업은 통일된 자주강국, 연방국가의 건국으로 빛나게 완수될 것이다. 이것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대변혁의 경로다.

글을 맺으며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이 힘있게 수행되고 그 과업을 완수하는 최종지점으로 다가가는 전체 과정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민족사의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혁명적 과정이다. 또한 그 과정은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에게 짓밟혀왔던 남(한국)의 근로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새로운 차원에서 개척하는 해방과 변혁의 과정이다. 사회적 집단이 자주성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창조과정을 ≪혁명≫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 민족민주전선은 그러한 혁명의 준비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며 투쟁하고 있는 혁명의 준비기는 사회역사를 개조 · 변혁하는 주체의 역량이 장성되고 그 역량의 주동적 작용이 비상히 강화되는 시기다. 그러므로 혁명의 준비기에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선운동조직의 일꾼들은 그 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의 한 복판으로 자신의 삶을 온통 던져 넣는 전투적 행군길에 승리의 기치를 치켜들고 앞다투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국연합 중앙상임위원회가 발표한 ≪9월테제≫는 그 전투적 행군의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 실천의 작전도로 된다. ≪9월테제≫를 이루어내려는 열의에 불타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의 일꾼들은 그 작전도를 들고 남(한국) 전역을 누비며 대중투쟁과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장차 이 땅을 뒤덮을 승리의 서광은 그들의 혁명적 실천에서 비쳐오고 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년 10월 19일